

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아시아의 상호인식과 경계들

김지윤

인적 교류와 타문화 경험이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타자화의 여러 양상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환대가 어려운 문제임을 거듭 환기시킨다. 이 연구는 아시아 사회 내 상호인식을 비교함으로써 문화적 인접성 및 거리의 문제를 재고하고 한국 사회의 타자 인식을 상대화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사람들은 1) 다른 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2) 다른 아시아인을 어느 정도의 인적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문항 사이 상동 관계를 검토한다. 특히 '가까운 친지, 친구, 이웃 주민, 직장 동료, 영주권자, 방문객, 배제' 등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의 질문은 이 연구 내에서 외국인, 특히 다른 아시아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환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기능한다. 아시아 사회의 상호인식 지형을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2008년, 2013년, 2018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체 14개 아시아 국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Asian Student Survey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김지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이자 연세대학교 매체와예술연구소 전문연구원이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수학했고 일본 도쿄대학 학제정보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동과 이문화 접촉 경험이 매개하는 타자성과 세계성을 주제로 역사적, 문화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공저논문으로 "샘 오취리의 스타 이미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다문화주의의 발전과 한계"(2021), "A Conversation about Global Lives in Global History"(2018) 등이 있다.

일시: 2022년 4월 20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20호)